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신이 아는대로 진실을 말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4월 25일)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한국불교 문화유산 세계화 사업 '박차'

파리 등지서 韓불교 문화행사 잇달아

신성민 · 임은호 기자

유네스크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와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등 한국불교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행사가 해외서 잇달아 열린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과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함께 5월 19일부터 파리와 낭트 등지에서 한국관광문화대전 불교문화 특집 행사를 개최하고 연등회와 직지 등 한국 불교문화를 홍보하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9월까지 연등회 특별전
燈 제작 강습도 진행해
연등회 미디어아트 선봬
직지 홍보 행사도 진행
'르꼬르동 블루' 본교와
협약 맺고 사찰음식 강의

연등회보존위원회는 9월 16일까지 진행되는 '빛나는 색의 불교 축제,연등회' 특별전을 통해 다양한 전통등을 프랑스인들에 알린다. 특별전에는 전통등 제작 강습을 비롯해 연등회 가상 퍼레이드와 등불 축제를 주제로 한 NFT 미술 전시회 등도 선보인다. 또한, 연등회를 주제로 하는 미디어 아트도 6월 30일까지 공개된다.

5월 20일 '직지' 불어 번역본을 발간한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5월 25일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직지 발간기념식' 과 대중강연회 등 홍보 활동을 펼친다.

'직지' 는 인류 인쇄기술의 혁명이라 알려진 쿠덴베르크 '42행 성서' (1377년)보다 78년 앞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직지' 는 상권과 하권으로 발행됐는데, 현재 상권은 전해지지 않고 하권이 프랑스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보관돼 있다.

'직지' 는 선불교 깨달음의 정수를 뽑아 수록한 불교유산임에도, 그동안 그 가치에 대해 인쇄기술과 서지학적으로만 부각돼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계종은 2005년에 국문과 영문 '직지' 번역본을 발간하고, 2021년 번역본 재발간을 통해 직지' 의 내용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해왔다. 이번에 불어 번역서를 출간한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프랑스에는 유네스코 본부가 위치해 있고 '직지' 원본이 보관돼 있기도 해 불어 번역서 출간에 의미를 더한다.

조계종은 발간 기념식 후이어지는 강연회에서는 '직지' 불어 번역을 담당한 파리대학 브뤼느통 야닉(Bruneton Yannick)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조계종 사회부는 "'직지' 원본이 있는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로 번역된 '직지' 출간 기념회와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직지의 역사성과 한국불교 우수성이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 사찰음식도 미식의 나라 프랑스 사람들의 입맛을 매료시키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5월 12일부터 프랑스 파리 그랑 펠레(Grand Palais)에서 열리는 '테이스트 오브 파리(Taste of Paris)' 에 참가해 한국의 사찰음식을 세계인에게 알렸다.

또한 문화사업단은 5월 17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르꼬르동블루 파리본교와 한국 프랑스 간 음식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한국 사찰음식에 관한 교육 사업 발전을 위한 3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르 꼬르동 블루 본교의 채식전문과정(Plant-Based Culinary Arts)의 정규과목으로 사찰음식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음식을 먹는 과정 역시 수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찰음식의 정신이 외국인들이 특히 열광하는 이유"라며 "음식에 대한 이런 철학은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어느 나라에서든 보편적인 설득력과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어 큰 반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설안산 신흥사 회주 우송 스님(사진 오른쪽)을 비롯한 스님들이 향성선원 무문관에 결기를 보이며 입방하고 있다.

눈 푸른 납자들, 문 없는 문에 들다

신흥사 향성선원 무문관 첫 안거 결제 현장 가다

무문관 변모, 11명 방부 들여
신흥사 회주 우송스님도 입실
무문관 2곳 운영 유일한 본사



무문관으로 새롭게 변화한 설악산 신흥사 향성선원 전경.

불기 2566년 임인년 하안거를 맞아 5월 15일 전국 선원이 일제히 결제에 들었다. 눈 푸른 납자들이 오직 일대사 해결을 위해 각 선원에서 방부를 들인 가운데,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향성선원도 무문관으로 전환한 후 첫 안거에 돌입했다.

향성선원 무문관 개원으로 신흥사는 조계종 교구본사 가운데 유일하게 무문관 수행처 두 곳을 운영하게 됐다.

기존 신흥사 향성선원은 13명이 안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경내 대중과 관광객들이 오가는 길목에 위치한 까닭에 수행환경 조성에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회주 우송스님은 향성선원을 수행에 충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하고자 결단을 내리고, 교구대중들의 원력을 모아 무문관으로 전환했다. 또다른 한 곳인 백담사 무문관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수좌스님들을 배출해왔으며, 설악 무산 스님의 매 안거마다 방부를 들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올 하안거 신흥사에서는 향성선원 무문관 11명, 백담사 무문관 11명, 기본선원 30명이 방부를 들였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향성선원 무문관에는 재개원 불사를 주도한 회주 법검 우송 스님이 수좌 스님들과 함께 입방해 눈길을 끌었다.

회주 우송 스님은 무문관 입방에 앞서 "한동안 사중 소임과 여러 불사로 오랜만에 방부를 들이게 됐다"며 "생전 조실 스님은 산중불교와 대중불교 모두를 중히 여기셨다. 대중 속에서 살아 숨쉬는 불교를 위해 스님들의 정진을 항시 강조하고 당부하신 만큼, 무문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향성선원 무문관은 수좌 스님들의 수행에 어떠한 지장이 없는 환경에서 철저하게 자신과, 화두와의 싸움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매일 새벽 3시부터 정진하며 공양은 하루 한 끼, 오전 10시 50분 외호대중들이 배식구를 통해 제공한다. 모든 시간이 온전한 수행이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다.

스스로 정진에 매진할 수 있는 근기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첫 입방자는 구참수좌들이 주를 이뤘다. 입방자의 법납은 13년에서 57년까지 다양했으며, 최고령 스님은 세납 72세로 알려졌다. 무문관, '문 없는 문' 이란 의미가 고스란히 담긴 만큼, 방부를 들인 수좌 스님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신흥사 관계자는 "정원을 넘어선 수좌들의 입방신청이 이어진 가운데, 사중회의를 통해 입방자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선원장 현탁 스님을 중심으로 용상방은 꾸려졌지만, 수행은 90일간 각자 정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외부와의 소통창구는 하루 한번 외호대중이 공양구로 전달하는 식사가 전부다.

결제일인 5월 15일 오전 10시, 신흥사 설법전에서 하안거 결제법회가 봉행됐다. 교구 대중과 신도들도 자리를 함께해 안거를 앞둔 52명의 수좌스님들을 향한 아낌없는 격려를 전했다.

결제법어는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의 생전 법문으로 대체됐다. 영상 속 설악 무산 스님은 "신흥사에 용성 스님의 선풍이 이어지고 있다면 백담사에는 만해 스님의 선풍이 살아 숨쉬고 있다"며 그 맥을 후학들이 이어가야 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특히 만해 스님의 법어를 인용해 수행을 통한 화두참구로서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시간 남짓 진행된 결제법회 후 기념촬영을 마친 스님들이 일제히 무문관에 들었다. 결연한 의지가 담긴 형형한 눈빛으로 문 없는 문을 연 11명의 스님들이 모습을 감추자. 외호대중들은 문 밖의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합장으로 수좌 스님들의 무탈한 정진을 발원했다.

〈종정 · 총림 방장 법어 5면〉

설악산 신흥사=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